



## 주니어 조합원들의 공론장 '넥스트 연합' 뒀다 지난달 20일 발족 회의...36~39기 조합원 참여

연합뉴스의 미래를 짊어질 저연차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노조 사무실에서 저연차 조합원들의 협의체인 '넥스트 연합'(Next Yonhap) 발족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노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자들과 저연차 기수별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넥스트 연합 구성과 운영 방안에 합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넥스트 연합은 위원장 직속의 자문 기구로, 대부분 90년대생인 36~39기(2018년 이후 입사)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넥스트 연합은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로 노조 전임자들이 노조 현안을 설명하고 저연차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조 현안에 관한 저연차 대표들의 토론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연차 조합원들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넥스트 연합이라는 명칭은 저연차 조합원들의 공론을 통해 탄생했다. 젊은 조합원들의 주도로 지금까지는 다른 차세대 연합뉴스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넥스트 연합의 발족은 노조 내에서 저연차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수 간부를 중심으로 관성적 운동을 계속한다면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유리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깔려 있다.

지난해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 중단 사태도 넥스트 연합 발족의 계기가 됐다. 당시 저연차 조합원들은 평생 일터인 연합뉴스가 초유의 위기를 맞은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지만, 이를 표출하고 회사의 미래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 회사에 몸담을 기간이 누구보다도 많이 남은 저연차 조합원들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넥스트 연합은 노조 전임자와 저연차 조합원 대표들이 주축이지만, 개방적으로 운영된다. 노조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저연차 조합원은 누구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넥스트 연합에 기대한다

#### 오보람 (2019년 입사)

연합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밖으론 친구가 없고 안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느 때보다 거센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주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넥스트 연합 구성원들은 4년 차 이하의 어린 기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을 연합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선배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우리의 소신과 생각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위 아 온 더 넥스트 연합~ 결속을 무기로 광야로 걸어가 봅시다!

#### 박원희 (2019년 입사)

저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생겨 기쁩니다.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신 노조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을 땐 '넥스트 연합'이 원활한 공론장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말하고 공론을 모으고 회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합원이 다니고 싶은 연합뉴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넥스트 연합이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 이승연 (2021년 입사)

입사한 지 1년이 지나 처음으로 들어가 본 노조 사무실. 다소 긴장됐던 첫 만남이 지나고, 어느덧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편안하고 따스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반겨주시고, 어디서든 배울 수 없는 꿀팁들을 전해주시는 노조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넥스트연합이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가 더 많은 선배, 동기, 후배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조사비 신청하세요"...

### 소급기한 5년으로 연장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소급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갑은 1957년, 칠순은 1948년, 팔순은 1938년까지 소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서도 조합원의 경조사항에 대해 소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신청하신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니 연합뉴스 업무 포털사이트나 인사부 등을 통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급기한은 5년이지만 '회갑'과 '팔순' 항목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경조사비 지급표 ▶

구분		금액
축의금	본인 결혼	20만원
	자녀 결혼	20만원
	부모·배우자 부모 회갑	20만원
	부모·배우자 부모 칠순	20만원
	부모·배우자 부모 팔순	20만원
	출산(본인,배우자)	20만원
조의금	본인	30만원+조합원 기본급1~2% 공제
	배우자	30만원
	부모	30만원
	배우자 부모	30만원
	자녀	30만원
	승중상	10만원
	형제,자매	10만원
	배우자 형제,자매	10만원

# 기본급 0.9% 인상...배우자 건강검진 매년 한다

## 2021년 임단협 체결...통근·근속수당도 3만원씩 인상

### 성기홍 사장 "송구한 마음...내년에 진전된 협상 여건 조성되길"

노사가 지난달 27일 2021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의 골자는 기본급을 0.9% 올리고 통근수당과 근속수당을 3만원씩 각각 인상한 것이다. 단체협약에는 사원의 배우자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재충전 및 장기근속 휴가비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재현 노조 위원장은 조인식에서 협약에 대해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기본급 인상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OT 및 휴일 수당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기홍 사장은 “사장로서는 기쁜 마음보다는 솔직히 노조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기본급이 동결된 사실을 언급하고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원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임금 인상을 결과물로 내지 못한 데 대해 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성과로써 결실을 맺어 내년도 임금 협상에선 좀 더 진전된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라고 그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합은 작년 11월 30일 임단협 협상 개시를 요청한 뒤 12월 20일 사측과 상견례를 했다. 노사는 한달여 동안 6차례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비공

식 접촉을 벌였다. 조합은 협상 초반 조합원 설문조사와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기본급 3.5% 인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포털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현금 흐름 악화 등을 이유로 기본급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2년 연속 기본급 동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측에 이런 뜻을 강력히 전했다.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는 수정안을 가져왔다. 조합 집행부 협상단은 막판까지 기본급 인상률을 좀 더 높이고 OT 수당 등을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사측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현실적으로 파업 등 최후 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 끝에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지난달 26일 화상회의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추인됐다.

단체협약 개정안을 보면 사원의 만 40세 이상 배우자(미혼인 만 40세 이상 사원의 부모 중 한 명도 가능)의 건강검진 지원이 격년에서 매년으로 확대됐다. 또 만 15년 및 25년 근속사원의 장기근속휴가 일수가 9일에서 12일로 늘었다. 만 10년 근속사원의 재충전 휴가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



었다. 재충전 휴가자 및 장기근속 휴가자의 휴가비는 10만원씩 인상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 규약과 회계운영 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노조 규약의 집행부 중 여성부 명칭이 성평등부로 바뀌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젠더 관련 이슈에서 여성만이 고려 대상이라는 사고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점에서 결정한 조치다. 또 회계운영 세칙에서 노조 경조사비 소급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업무로 여유가 없는 조합원이 경조사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소급 기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 <알쏭달쏭 새로운 임단협 Q&A>

**Q-1. 조합원 배우자 건강검진이 격년에서 매년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모든 조합원의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 기준’이라는 건데요. 조합원 본인이 만 40세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이면 대상자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면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미혼이시라면 본인이 만 40세가 되셨을 때부터 부모님 중 한분께 혜택이 돌아갑니다.

**Q-2. 만 15년, 만 25년 장기근속 휴가 일수가 9일에서 12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만 15년이 되는데요. 12일 적용 대상자인가요?**

A-2.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개정된 단체협약은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1월 1일 구(舊)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9일의 휴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0년 근속 재충전 휴가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1월 1일 만 10년이 된 조합원은 사용기한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Q-3. 재충전 휴가 및 장기근속 휴가자의 휴가비도 10만 원 인상됐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 만 15년 된 저는 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3.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충전 휴가 및 장기근속 휴가비를 입사 익월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라면 2월에 휴가비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올해 1월 1일 만 15년 된 조합원은 2월 이후 휴가비를 지급받으실 예정이신데요. 개정된 단체협약 효력이 1월 27일 발생하기에 인상된 휴가비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1월 재충전 및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가 되셨다면 10만 원씩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저는 연간 기본급의 800%인 상여금을 8개월에 걸쳐 나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개월로 나눠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여금을 ‘균등분할’ 하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연봉제 전환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앤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없는 건가요?**

A-4. 연봉제로 전환하려면 사규 인사 규정상 ‘정기승호’를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승호를 없애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승급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으로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날 우리는... 40기 수습 노조교육 후기



오진송

신입사원에게 ‘노동조합’은 익숙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노조교육 전날 노조 선배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고, 교육 당일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마카롱과 스타벅스 카드를 스물 한 명이나 되는 40기에게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노조에 금세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무사님과 선배의 강의를 통해 회사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동권은 재산권과 함께 자본주의의 양대 축이라는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훈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다보면 정작 우리 회사 내의 목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간절한 구조 요청이거나, 회사의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일 것입니다. 혹은 전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제언일 수도 있습니다. 노조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고 희미하지만 노조라는 울림통을 거치면 회사를 울리는 거대하고 선명한 함성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교육이었습니다.



김민지

노조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지금 다니는 연합뉴스라는 언론이 선배들의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임을 실감했고 연합뉴스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노조의 의의와 역사를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합뉴스의 일원으로서 더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부러 시작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더 다니기 좋은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지은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기자의 면모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자의 모습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지켜주신 공정 보도원칙, 편집권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선후배간 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사내교육 마지막날, 가자! 경찰서로!!



"푹푹했던 그날의 우리들, 노조 교육받던 날 인사동을 투여하며 추억을 담아보았다. 지칠 때마다 꺼내봐야지" ▶

## <알림> 베이징올림픽·대선·광주아파트붕괴 취재단에 지원금 전달

노동조합 집행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재단에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한달가량 앞두고 정치부에도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취재단에는 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